

북경대 소장 《洪湛軒尺牘》 原文 및 校譯(Ⅲ)*

강 찬 수**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洪湛軒尺牘》 原文 및 校譯
 - 2.23 <九月十日與鐵橋>
 - 2.24 <書後另紙>
 - 2.25 <又發難二條>
 - 2.26 <書後附四言詩九章>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北京대학 古籍部 소장 《日下題襟合集》¹⁾에 수록된 《洪湛軒尺牘》의 全文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일련의 연구과정 중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주석 논문으로, 총 30信 중 제23신 <九月十日與鐵橋>에서 제26신 <書後附四言詩九章>까지 4통의 서찰 내용을 국내 연행 문헌과 비교하여 살

* 본 연구는 2020년도 원광대학교 연구 지원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과 부교수(fromshanghai@wku.ac.kr)

1) 북경대학도서관 청구번호: [LSB/2649]

청나라 乾隆 30년(1765) 동짓달에 조선의 湛軒 洪大容과 養虛 金在行(1718-?)이 子弟軍官 신분으로 三節年貢 兼 謝恩行에 참가하여 연경으로 길을 떠났다. 이 두 사람은 이듬해인 1766년 음력 2월 會試를 치르러가 연경에 올라와 있던 항주 출신의 嚴誠, 陸飛, 潘庭筠 등 세 선비를 북경 乾淨衛(지금의 琉璃廠과 前門大街 일대)에서 만나 '天涯知己'의 인연을 맺으며 누차 편지 왕래를 하였다. 이들의 通信은 북경에 함께 머물던 시기뿐만 아니라 홍대용과 김재행이 귀국한 이후까지도 지속되었다. 1767년 가을 항주에 있던 엄성이 역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그의 同鄉이었던 朱文藻(1735-1806)가 그간 주고받은 서찰을 모아 정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책독집 《日下題襟合集》이다.

펴보고 이를 다시 현대문으로 옮긴 것이다.

이 4통의 서찰 안에는 홍대용²⁾이 연행하여 북경에 머물던 시기에 돈독한 우의를 다졌던 엄성,³⁾ 육비,⁴⁾ 반정균⁵⁾ 세 사람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절절하게 써 내려가는 가운데 홍대용 본인의 학문 세계를 드러내는 대목들이 유독 많이 담겨있다. 그는 <九月十日與鐵橋>에서 책을 읽는 목적이 진리를 밝혀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지식과 실천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書後另紙>에서는 ‘實學’을 언급하며 이러한 학문 태도를 더한층 구체적으로 드러내었으며, <又發難二條>에서는 제현들의 말씀을 예로 들어 유불도 삼교의 궁극적인 이치와 송나라 이후의 명망 높은 제유들이 老佛 사상에 깊이 심취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묻기도 하였다.

<書後附四言詩九章>에 수록된 9수의 사언시는 홍대용이 병술년(1766) 9월 중앙절에 엄성에게 적어 보낸 것으로, 《湛軒書》와 관련 연행 문헌에 미수록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이 4통의 서찰에는 홍대용의 《湛軒書》과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바, 그동안 문맥의 의미를 올바르게 새길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이 문헌들을 상호 보완하여 살펴볼 수 있어 향후 관련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洪大容(1731-1783): 자는 德保, 호는 湛軒 또는 弘之이다. 그는 18세기 대표적인 실학자로, 연행집 《湛軒燕記》, 《乙丙燕行錄》 등을 남겼다.

3) 嚴誠(1732-1767): 자는 立庵 또는 力闇, 호는 鐵橋, 浙江 仁和人이다. 저서로 《鐵橋集》이 전한다.

4) 陸飛(1719-?): 자는 起潛, 호는 筱飲, 浙江 仁和人이다. 저서로 《筱飲齋稿》가 전한다.

5) 潘庭筠(1742-?): 자는 蘭公, 호는 德園, 浙江 錢塘人이다. 저서로 《稼書堂集》이 전한다.

2. 《洪湛軒尺牘》 原文 및 校譯

2.23 九月十日與鐵橋⁶⁾

大容頓首白：

初秋一書，已關崇聽否？霜露既降，秋氣日涼，願言之懷，與歲俱深。想故人萬里，當有以知我心也。不審入秋來，上奉下率，啓居適宜，看書講學之外，體驗踐履之功，益有日新之樂否。奉別以來，蓋靡日而不思，其思之也，未嘗不心摧而腸結焉。此其故，豈徒如區區兒女之情思而已？⁷⁾

向使子而無才無德，⁸⁾庸庸一俗夫，則固不可思也。使子而埋頭舉業，以科宦爲性命，則亦不當思也。使子而不能脫然好古，以聖賢豪傑自期待，則亦不足思也。使子而恃才傲人，視我邁邁，貌同而心異焉，則亦不必思也。今才子⁹⁾蓋一世而謙謙自卑，心雄萬夫而溫溫自虛，性情高遠，志操孤潔，從俗應舉，非其所樂，又能愛人好問，誠貫金石，臨分酬酢，信義皦如。至使我于修錄之際及念六長別之語，¹⁰⁾乃目不忍視，手不忍書，掩卷閣筆，仰天而長吁焉，嗚呼！人非木石，安得不思之？思之又重思之，¹¹⁾終身想望，愈久而愈苦耶？

容夏秋以來，憂病相仍，焦遑奔走，不能偷片隙讀一字書。以此心界煩亂，少恬靜恬養之趣，志慮衰颯，少彊探勇赴之氣。¹²⁾別來功課濶落，無可道者，奈何？且讀書者，將以明夫理而措諸事者也。苟能讀之精、講之熟、見之的、得之眞，則彼書

6) 《湛軒書外集》 卷一 <與鐵橋書>에 수록.

7) 《湛軒書外集》 卷一 <與鐵橋書>에는 “豈徒如區區兒女之情思而已耶?”라고 적고 있다.

8) 《湛軒書外集》 卷一 <與鐵橋書>에는 “使子而無才無德”이라고 적고 있다.

9) 《湛軒書外集》 卷一 <與鐵橋書>에는 “今才子蓋一世而謙謙自卑”라고 적고 있다. 문맥상 “才子”는 “子才”를 誤記한 보인다.

10) 念: ‘廿’자와 같은 글자로, ‘念六’은 홍대용이 북경 乾淨衞로 삼학사를 방문하여 필담을 나누었던 건륭 32년(1766) 음력 2월 26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1) 《湛軒書外集》 卷一 <與鐵橋書>에는 “人非木石，安得不思之？又思愈久而愈苦耶?”라고 적고 있다.

12) 《湛軒書外集》 卷一 <與鐵橋書>에는 “無彊探勇赴之氣”라고 적고 있다.

者, 乃無用之故紙也, 可以束之高閣矣. 惟精也、熟也、的也、眞也, 雖聖人猶有所憾焉, 則讀書者其功固無涯矣, 而果學者之終身事業也. 雖然, 知行兩端, 固不可偏廢, 而本末輕重之分, 又大有等別. 于此有差則不入于頓悟, 必歸于訓詁, 可不懼哉!

今吾輩之讀書, 鹵莽涉獵, 忽斷忽續, 既未精熟, 何論의眞? 其讀書之功既如是, 而又讀盡一書, 便謂吾事已了, 乃猖狂忘行,¹³⁾ 無所忌憚, 不知讀書盡后便去行之, 方大有事在. 譬如有人欲作遠行, 書者一部路程記也. 行者秣馬脂車, 按記而驅且驅者也. 惟繫馬埋輪,¹⁴⁾ 非驅非馳, 戚戚焉惟記之是講,¹⁵⁾ 所以行邁之謀, 終無潰成之日也. 從善如登, 從惡如崩, 歲月如流, 行將老死, 佛氏所謂“此生不向今生度, 更向何時度”者, 乃是眞切驚人之語也. 伏願力闡鑑我無成, 益加努力, 憫我不進, 痛賜責責, 得以鞭策跛躄, 追躡後塵也. 餘在別紙.¹⁶⁾ 不宣

丙戌(1766)重九翌日, 愚兄洪大容拜上 鐵橋賢弟足下

【역문】

대용이 아웁니다.

초가을에 올린 편지는 이미 받아 보셨습니까? 이슬과 서리가 벌써 내리고 가을 날씨는 날로 쌀쌀해지니, 함께 담론하고 싶은 마음이 해를 거듭할수록 함께 깊어만 갑니다. 대형께서도 만 리 땅에 떨어져 있으니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로 접어들에 식구 모두 무고하고 편안히 지내시며, 독서하고 강학하는 일 외에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는 공부에도 나날이 더욱 새로워지는 즐거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작별한 이래로 대형을 떠올리지 않은 날이 없고, 떠올릴 때면 또한 마음이 울적하여 오장이 꼬이는 듯 괴롭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어찌 한갓 구구한 아녀자 심정

13) 《湛軒書外集》 卷一 <與鐵橋書>에는 “乃猖狂妄行”이라고 적고 있다. 문맥상 “忘行”은 誤記로 보인다.

14) 《湛軒書外集》 卷一 <與鐵橋書>에는 “繫馬埋輪”이라고 적고 있다.

15) 《湛軒書外集》 卷一 <與鐵橋書>에는 “切切焉惟記之是講”이라고 적고 있다.

16) 《湛軒書外集》 卷一 <與鐵橋書>에서는 “餘不備”라고 적고, 그 아래는 생략하였다.

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줄곧 대형이 재주 없고 덕도 없으며 용렬하고 범속한 사람이었다면 진실로 마음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형이 과거에 몰두하여 벼슬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다면 역시 마음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형이 초연하게 옛 것을 좋아하여 성현이나 호걸이 되기를 스스로 기약하지 않았다면, 역시 마음에 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대형이 만약 재주나 믿고 남을 업신여겨 나 보기를 멀리하여 겉으로만 벗인 척하고 속마음이 달랐다면 또한 마음에 둘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대형의 재주가 온 세상을 덮음에도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마음이 만인의 위에 올라와 있는데도 온온하게 스스로를 겸허히 하며, 성정이 고매하고 지조가 고결하여 세속을 좇아 과거를 보기는 하였으나 즐거워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남을 사랑하고 문기를 좋아하여 진실로 금석을 꿰뚫을 수 있을 정도였으며, 작별할 때에는 술잔 들어 대접하는 데에도 신의가 분명하였습니다. 제가 정리하여 기록하고 26일의 긴 이별을 고할 때에는 차마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는 글을 쓸 수 없어서, 책을 덮고 붓을 던지며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아! 사람이 목석이 아니니 어찌 생각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둬 떠올리며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리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괴로워지겠지요?

저는 여름과 가을 이래로 우환과 질병이 서로 연달아 발생해, 초조하게 쉬 없이 바빠 뛰어다니느라 글 한 자 읽을 틈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마음이 번잡스럽고 어지러워 조용히 수양하는 정취가 적고, 의지와 사려가 쇠잔하여 끈질기게 탐구하여 용감히 나아가는 기백이 없어져서 작별한 이래로 공부가 퇴보하여 거론할 만한 것이 없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또한 책을 읽는 목적은 진리를 밝혀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밀하게 읽고 익숙하게 설명하며, 정확하게 찾아보고 참되게 얻어낼 수 있다면, 저 책이란 것은 소용없는 휴지에 불과할 것이니, 묶어서 다락에 집어넣어두어도 될 것입니다. 다만 정밀과 익숙함, 적확함과 참됨이란 바로 성인도 오히려 다 못

하는 한스러움이 있는 것이니, 독서란 그 공부의 참으로 끝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학문하는 사람들이 평생토록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식과 실천의 두 가지 일은 진실로 어느 한쪽도 폐할 수 없는 것이요, 본말(本末)과 경중(輕重)의 구분 또한 크게 차등과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이 있게 되어 돈오(頓悟)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훈고(訓誥)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니 가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책을 읽는 모습은 제멋대로 이것저것 읽으며 읽다 말다하고 있습니다. 정밀하지도 익숙하지도 못한데, 어찌 적확하고 참된 것을 거론하겠습니까? 그 독서하는 노력이 이미 이와 같은 지경인데, 또다시 책 한 권을 다 읽게 되면 곧바로 내 할 일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미친 듯이 날뛰며 경망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독서가 끝난 뒤에는 곧바로 실천해야 하며 장차 큰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비유컨대, 먼 길 떠나려는 사람이 있다면 책이라는 것은 노정을 적는 기록입니다. 길 떠나는 사람은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수레바퀴에 기름칠해서 표지를 따라 몰고 달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을 잡아 매 놓고 수레 손질만 하며 몰지도 달리지도 않은 채 근심스레 오로지 노정의 기록만 설명하고 있으니, 이는 멀리 가려는 계획이 끝내 성공할 날이 없게 되는 이유입니다. 선(善)을 따르는 산에 오르는 것과 같고, 악(惡)을 따르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하여 어느새 늙어 죽게 되는 것이니, 불가에서 “이 몸이 이생에 교화되지 않으면 또 언제 교화되겠는가?”라고 한 것이 참으로 절실하고 놀라운 말입니다. 바라옵건대, 역암 대형께서는 제가 이루어낸 것이 없음을 거울삼아 더욱 노력하시고, 저의 발전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아프게 꾸짖으시며, 절뚝거리는 이 사람을 채찍질하여 뒤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른 종이에 적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병술(1766)년 중앙절 다음날에 홍대용이 철교 현제에게 배상합니다.

2.24 書後另紙

2.24.1 古今人品，槩有六等。今排定位次，以爲勸懲之準。第一位聖人，一疵不存，萬理明盡；第二位大賢，道全德備，守而未化；第三位君子，行己有恥，使四方不敢辱；第四位善人，宗族稱孝，鄉黨稱弟；第五位俗人，同流合污，避害趨利；第六位小人，貪鄙狗彘，慘毒蛇蠱。凡此六等，可惡者小人，可悶者俗人，可愛者善人，可敬者君子，可畏者大賢，不可及者聖人。俗人非可惡，而以其與小人比鄰也。滿腹利害，依違于人獸間，所以爲可悶也。善人雖可愛，而以其與俗人隔壁也。識之未透，義理參半，故可愛之中，又有可憂者存焉。君子以上，方始爲人。

嗚呼！小人者世不常有，而俗人者滔滔皆是矣。善人雖可愛而亦不足爲終身準的。若由君子而進于大賢，則雖不及聖人，亦可謂今之成人矣。如吾輩者歸之俗人，或其不甘，而其于善人已有多少不盡分處，所謂二之中也。嗚呼！其可愧懼也已。

人苟有要學聖人之志，則其講學之功，踐履之實，必汲汲循循，愈進愈篤，無逡巡遊泛。若存若亡之理，其徒尚頰舌，色厲內荏，虛名外重，實德內疚，苟焉爲自欺而欺人者，皆無希聖之實志也。然則今之所謂學者，果何所志而爲學耶？

大畧有五種焉。一曰利心，假眞售僞，居之不疑，以干祿爲心者。二曰名心，生則賓師，歿則俎豆，以誇張爲悅者。三曰勝心，莫高于道學，他術爲低，以標致爲高者。四曰伶俐，讀書談理，少所礙滯，以辨析爲能者。五曰恬雅，適爾寡欲，親近簡編，以玩索爲樂者。

利心，魍魎也，名心，佞¹⁷⁾僞也，勝心，壁蝸也，伶俐，鸚鵡也，恬雅，蠹魚也。向學立心，有一于此，便是種子不好，其于希聖之功，吾知其愈進而愈遠矣。¹⁸⁾

17) '僞'자를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18) 이 내용은 金昌翁(1653-1722)의 《三淵集》 卷33 <日錄>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己亥(1719)三月初五日'條에는 "余嘗以人品六等，排定位次，每爲後學切切言之，以爲懲勸之準。第一位聖人，一疵不存，萬理明盡。第二位大賢，道全德備，守而未化。第三位君子，行己有恥，使四方不辱。第四位善人，宗族稱孝，鄉黨稱弟。第五位俗人，同流合污，避害趨利。第六位小人，貪鄙狗彘，慘毒蛇蠱。凡此六等，可惡者小人，可悶者俗人，可愛者善人，可敬者君子，可畏者大賢，不可及者聖人。俗人非大惡，而以其與小人比隣也。滿腹利害，依違於人獸間，所以爲可悶也。善人雖可愛，而以其與俗人隔壁也。識之未透，義理參半，故可愛之中，有可憂者存。君子以上，方始爲人。"과 "然則今之儒者，果何所志而爲學耶？大畧有五種

【역문】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품성에는 대략 여섯 등급이 있습니다. 이제 그 순서를 배열하여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성인은 조그만 흠도 없고 세상 모든 이치를 분명하게 꿰뚫고 있다.

둘째, 대현은 도덕을 두루 갖추어 그 도덕을 지키고 변하지 않는다.

셋째, 군자는 실행하는 바에 이미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히 욕을 보지 않는다.

넷째, 선인은 종족들이 그를 효성스럽다고 칭송하고 고향의 친구들이 그를 우에 있다고 칭찬한다.

다섯째, 속인은 못된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더러운 것에 물들기도 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을 피하며 이익을 좇는다.

여섯째, 소인은 개나 돼지처럼 욕심 많고 야비하며, 독사와 전갈처럼 참혹하고 악독하다.

이 여섯 등급의 무리 중에서 가증스러운 자는 소인이며, 불쌍한 자는 속인이고, 사랑스러운 자는 선인이며, 존경스러운 자는 군자이며, 두려운 자는 대현이며, 좇을 수 없는 자는 성인입니다. 속인은 가증스럽지는 않지만 그 저속함으로써 소인과 함께 이웃하는 자들입니다. 뱃속 가득 이해득실을 따지며 사람과 짐승 사이를 오가는 것은 가련한 자들이 되는 이유입니다. 선인은 비록 사랑스럽지만 그 선함으로써 속인들과 벽을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아는 것이 투철하지 못하고 의리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가운데 또한 걱정스러운 것이 있기도 합니다. 군자의 윗 부류에 속해야 비로소 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오호라! 소인들은 세상에 항시 있지는 않지만, 속인들은 도도한 물결처럼

焉。一利心，假眞售偽，居之不疑，以干祿爲心者。一名心，生則賓師，沒則俎豆，以誇張爲悅者。一勝心，莫高於道學，他術爲低，以標致爲高者。一伶俐，讀書談理，少所礙滯，以辨析爲能者。一恬雅，適爾寡慾，親近簡編，以玩索爲樂者。利心，魑魅也，名心，傀儡也，勝心，壁蝸也，伶俐，鸚鵡也，恬雅，蠹魚也。從初向學立心，只如此，則便是種子不好，學者當仔細點檢也。”라고 적고 있다.

온통 가득합니다. 선인은 비록 사랑스럽지만 또한 일생의 목표로 삼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군자의 경지를 통해 대현의 경지에 들어간다면 비록 성인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는 못하지만 오늘날의 된 사람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속인에 귀속된다면 몇몇은 좋아하지 않을 테지만, 선인의 경지에 있어서 몇몇 완전히 구분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테니 두 무리의 중간이라 하겠습니다. 오호라! 부끄럽고 두려울 뿐입니다.

사람이 만약 성인의 경지를 배우려는 뜻을 두었다면, 가르침의 공력과 충실한 실천에 반드시 전념하여 따르고 거듭 더 돈독히 하여, 서성대며 밖으로 걸도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이치에 대해 그저 낯빛과 말만 고상하게 하고 겉으로는 굳은 체하고 안으로는 무르며, 헛된 명분은 밖으로 보이는 것만 두터워지고 충실한 덕은 안으로 병폐가 될 것이니, 구차히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자는 모두 성인을 본받고자 하는 충실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배우는 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뜻을 갖고 학문하고 있던 말입니까? 대략 다섯 분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이심(利心)'(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은 참된 것을 빌어 거짓됨을 팔고 그에 머물면서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높은 관직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둘째, '명심(名心)'(명성을 추구하는 마음)은 살아서는 높은 사람에게 손님으로 대접을 받고 죽어서는 제향으로 받들어지고자 하고, 과장하여 즐거움을 삼는 것이다.

셋째, '승심(勝心)'(이기고자 하는 마음)은 도학에 더없이 높으며 다른 학술을 낮게 여기고, 나타난 정취로써 고상함을 삼는 것이다.

넷째, '영리(伶俐)'(눈치 빠르고 똑똑함)함은 책을 읽고 이치를 의논하며 막히는 것을 적게 하고, 변별하며 해석하는 것으로써 능함을 삼는 것이다.

다섯째, '염아(恬雅)'(욕심 없이 편안한 마음)함은 욕심 없는 지경에 나아가며 서책을 가까이 두고, 글의 깊은 뜻을 찾기를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다.

'이심'은 도깨비 같은 것이며, '명심'은 꼭두각시 같은 것이며, '승심'은 껌질

속의 달팽이 같은 것이며, ‘영리’는 앵무새 같은 것이며, ‘염아’는 좀벌레 같은 것이다. 학문을 향해 뜻을 세우고자 할 때, 다섯 종류의 마음 가운데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 씨앗이 좋지 않을 것이니, 성현을 본받고자 하는 공부에 있어서 더 나아가면 갈수록 더욱 멀어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2.24.2 天下之英才，不爲少矣。惟科宦以牯之，物欲以蔽之，宴安以毒之，由是而能脫然從事于古學者鮮矣。詞章以靡之，記誦以夸之，訓詁以拘之，由是而能闡然用力于實學者鮮矣。功利以褻其術，老佛以淫其心，陸王以亂其真，由是而能卓然壁立于正學者尤鮮矣。

今力聞知科宦之爲輕，而身心之爲重，齋居八字，兼之以聞雷斷氣之戒，則已能從事于古學矣。舉醉夢之句，讚主敬之訓，刻刻提撕，不欲先講餘事，則已見用力于實學矣。平日好觀《近思》，以僭論陽明爲極，是知《楞嚴》·《黃庭》不若儒書之切實，則亦可以壁立于正學矣。以子之才，努力做去，刊落浮華，渾化渣滓。他日所就，其可量乎？扶正學，息邪說，承先聖，闢後學，匹夫之任，其亦重且遠，力闡勉之哉！

屈至敏之才，下至鈍之功，既知之矣，益鉤其深，既得之矣，如恐勿失，¹⁹⁾鼓舞以趨之，優游以味之，參伍以融之，以釋其紛，踴厲以肆之，以排其難。浸灌之不足，又醞郁之，涵泳之不足，又溫燭之，²⁰⁾摹畫之不已，乃成方圓，擬議之不已，乃成變化。始焉循序以致其曲，²¹⁾終焉耐久以歸乎熟。嗚呼！果能此道矣，亦思過半矣。

右六等五種之目，東方先輩之說也。余喜其造語切實，巧中時弊，常銘之心頭，作爲懿戒。今取其目，畧加演辭，繫之以狂言。奉寄鐵橋，僭擬替御之箴，兼以求教于筱飲·秋庫兩兄。²²⁾

19) 《湛軒書外集》卷一 <與鐵橋書>에는 “如恐不及”이라고 적고 있다.

20) 《湛軒書外集》卷一 <與鐵橋書>에는 “又溫燭之，涵泳之不足，又醞郁之”라고 적고 있다.

21) 《湛軒書外集》卷一 <與鐵橋書>에는 “始焉循序而致其曲”이라고 적고 있다.

22) 《湛軒書外集》卷一의 <與鐵橋書>에는 “右六等五種之目，……兼以求教于筱飲·秋庫兩兄.”의 부분이 빠져있다.

【역문】

세상에는 영재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와 벼슬이 이들을 속박하고 물욕이 이들의 눈을 가리고 안일함이 이들에게 독이 되나니, 이로 인해 초연하게 벗어나서 옛 성현의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시문으로 자신의 학문을 사치스럽게 하고, 기록이나 외워 읊조리는 것으로 자신의 학문을 부풀리며, 옛 문장을 풀이함으로써 자신의 학문을 구속하니, 이로 인해 묵묵히 실학(實學)에 힘쓰는 사람이 적습니다. 공리(功利)를 추구하여 자신의 학술을 어수선하게 하고, 도가와 불가의 학문으로 자신의 마음을 음탕하게 하며, 육상산과 왕양명의 학문으로 자신의 진실을 어지럽게 하니, 이로 인해 올바른 학문에 우뚝 벽을 치고 일어날 사람이 더욱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역암 대형은 과거와 벼슬을 가벼이 여기고 신심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시어, “과환위경, 심신위중(科宦爲輕, 身心爲重)”이라는 여덟 글자를 휘호한 서재에 머물며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양쪽을 모두 해내고 있으니, 이미 옛 성현의 학문을 좇아하고 계신 것입니다. ‘취몽(醉夢)’이란 구절을 가지고 ‘주경(主敬)’의 교훈을 찬미하여 시시각각으로 경각시켜 학문과 관련 적은 일들을 먼저 익히려 하지 않으니, 이미 실학에 힘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근사록》을 즐겨 읽고, 양명학을 주제넘고 경망하게 논하는 것을 지극히 옳다고 여기며, 불가의 《능엄경》과 도가의 《황정경》이 유가 서적의 절실함만 같지 못함을 안다면, 또한 올바른 학문에 벽을 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대형의 재능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겉으로 화려한 것을 떨쳐 버리고 찌꺼기를 정화시킨다면, 후일에 이루어낼 성취는 가히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학문을 일으켜 세우고 사악한 학설을 막으며, 앞선 성현의 학문을 계승하고 후학을 인도하는 것은 평범한 자의 임무 치고는 막중하고 요원한 것입니다. 역암 대형은 부디 더욱 힘써 주십시오!

지극히 명민한 재능을 굽히고 지극히 우둔한 공력을 낮추었으니 이미 그러

한 이치를 안 것이고, 더욱더 그 심오함을 끄집어내었으니 이미 그러한 이치를 체득한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듯, 격려하여 나아가게 하고, 유유하게 한가롭게 뜻을 음미하게 하며, 참작하여 융화시켜서 그 어지럽게 엮힌 것을 풀어 나가, 맹렬히 이론을 펼쳐 그 논란을 바로 잡으십시오. 빠져드는 것이 부족하거든 또한 두텁고 그윽하게 하며, 헤엄치듯 발버둥 치는 것이 부족하거든 또한 익숙하게 하십시오. 흉내 내어 쓰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모나고 둥근 여러 그림이 이루어지게 되며, 비교해 보고 의논해 보기를 멈추지 않으면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서를 따라가기만 하여 구부러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만, 끝내는 오래 참고 견디어서 원숙함으로 귀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호라! 과연 위에 말한 이 도리를 다한다면 또한 절반은 해 내었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의 여섯 등급의 인품과 다섯 종류의 마음가짐은 해동의 선학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의 절실하고 절묘함을 좋아하여, 시속의 폐습은 늘 마음에 새겨두고 좋은 교훈으로 삼습니다. 이제 그런 조목을 취하여 대략 부연된 말을 덧붙이면서 선부른 언변으로 엮어 보았습니다. 철교(엄성) 대형계 비유한 경계의 말씀을 경망하게 적어 보내며, 아울러 소음(육비)과 추루(반정균) 두 대형계 가르침을 구합니다.

2.24.3 容聞“君子之學，擇術爲先。”擇術不精，學仁義之差，或至于無父無君。古人之問之審而辨之明者，不其然乎？是以術既擇矣，講以詳之，行以體之，皆所以成其學也。學既成矣，得志，行于天下，不得志，傳諸後人。夫收育英才，著書立言，皆所以明天理，正人心，繼往聖而開來學者也，不惟區區于一己之不朽也。是以學無邪正，具曰“予知”則同焉。人無賢不肖，欲人從己則一也。

竊聞西林²³⁾先生以宿德重望，崇信佛氏，精貫內典，好談因果，諒其志，豈如愚民之蠢然于福田利益哉？必將自以爲擇之精而必求其學之成，推深造自得之妙，而思鼓天下以從己也。夫其制行如彼之厚，用意如彼之高，巋然爲仙鄉之師範，而言論風旨，又足以動盪耳目，倡率同志，則仙鄉之後生子弟，安得不服習景慕，從風而

23) 吳穎芳(1702-1781): 자는西林, 호는樹虛, 浙江 仁和人이다.

靡哉? 如力闇之初年病裏誦呪, 愛看《楞嚴》, 吾知其有所受之也. 其知幾明決, 不遠而復, 亦何望人之如力闇乎? 嗚呼! 壽夭, 命也, 窮達, 時也. 敬義忠信, 吾儒自有樂地, 苟能行之, 自可以一死生齊禍福, 樂而忘憂, 不知老之將至, 亦何必好逕欲速, 舍舊圖新, 汎濫于無父無君之教哉? 仁義變爲寂滅, 詩禮化爲梵偈, 聖道湮塞, 異言橫決. 嗚呼! 可爲傷痛也哉. 仁人君子, 寧不欲壁立千仞, 明目張膽, 思所以救之哉. 此所以不能無望于吾力闇也.²⁴⁾

【역문】

저 홍대용은 “군자가 학문에 임할 때에는 먼저 학문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들었습니다. 학문하는 방법의 선택을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그릇된 인의의 도리를 배우게 되어, 간혹 아버지나 군주에 대한 개념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옛사람들이 자세히 따져 묻고 밝게 변별하려 했던 것이 그러한 이유에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문하는 방법이 제대로 정해졌으면 자세히 연구하고 몸소 실천해야 하는 것이 모두 그 학문을 이루어 가는 과정입니다. 학문이 이미 성취된 뒤에 뜻을 얻으면 천하에서 실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후인에게 전해 줄 것입니다. 영재를 받아들여 교육시키고 책을 저술하여 학설을 세우는 것은 모두 하늘의 이치를 밝히고 사람 마음을 바로 잡으며 옛 성현의 학문을 계승하고 후학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지, 단지 개인적인 불후의 공적에 구차히 얽매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문에는 사도(邪道)와 정도(正道)의 구별이 없으니, 모두 “나는 알았다.”고 말하면 다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진 사람이나 못난 사람 구분 없이 남들이 나를 추종하기를 바라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저는 서림(西林) 선생께서 오래도록 쌓은 큰 덕망으로 불교를 숭배하고 불경에 정통하여 인과의 이치를 즐겨 담론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뜻을 살피건대, 어찌 우매한 백성들처럼 복전(福田)의 이익에 연연하셨겠습니까? 필히 스

24) 《湛軒書外集》 卷一의 <與鐵橋書>에 수록.

스로 면밀한 선택을 하여 학문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을 것이고, 미루어 스스로 얻은 묘법을 깊이 연구하여 천하 사람들을 부추기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분이 행동을 삼가는 것이 그토록 정성스럽고 마음 씩씩이가 그토록 고상하여, 우뚝하게 신선 세계의 모범이 되고 언론과 풍채가 또한 사람들의 이목을 뒤흔들고 동지들을 앞서 이끌 만하였으니, 신선 세계의 젊은 자제들이 어찌 바람 따라 기울 듯 그분의 가르침을 익히고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역암 대형이 젊은 나이에 병치레할 때 주문을 외우고 《능엄경》을 즐겨 읽으셨다 하시니, 저는 그분께 영향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미를 미리 알고 결단을 명확히 하면 멀지 않아 다시 올바른 학문세계로 돌아올 것이나, 또 어찌 사람들이 역암 대형처럼 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호라! 명이 길고 짧은 것은 운명이고, 곤궁하고 영달하는 것은 시운입니다. 공경, 정의, 충직, 신의의 덕목에는 우리 유생들이 스스로 즐거워하는 경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덕목을 실천할 수 있다면, 스스로 생사나 재복을 하나 같이 하여, 즐거이 근심을 망각하고 장차 늙어가는 것도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지름길을 좋아하여 빨리 가고자 하며 옛것을 버리고 새 것만을 도모하여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교리 속으로 흘러가려는 것입니까? 인의의 가르침이 변하여 적멸의 가르침으로 되고, 《시경》과 《예기》의 가르침이 변하여 불가의 가르침이 되니, 성인의 도가 막히고 이단의 학설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슬프고 통한할 일입니다. 어진 사람과 군자들은 어찌하여 천 길의 위험한 곳에서 벽을 치고 서있는 각오로써 눈을 부릅뜨고 구제하려는 방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역암 대형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2.24.4 容平生頗喜遊覽山水，惟局于疆域，不免坐井觀天。如西湖諸勝，徒憑傳記，寤寐懷想，而自遭逢諸公以來，爬搔益不自禁，顧此心一日之間，不知其幾迴來往于雷峯・斷橋之間矣。²⁵⁾ 若賴諸公之力摹，得數十諸景，竟成臥遊，則奚啻百

朋之賜也.²⁶⁾ 此不須畫格工拙, 只務細密逼真, 因各題其古跡梗槩于其上, 且因此而并得見諸公第宅位置, 齋居規模, 使之隨意披玩, 恍然若追奉杖屨于其間, 則豈不奇且幸耶! 筱飲秋廬, 均此 奉請²⁷⁾

【역문】

저는 평생토록 산수 자연을 유람하기를 매우 좋아하였는데, 다만 국경의 제한이 있어 우물 안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는 개구리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항주(杭州) 서호(西湖) 등 여러 절경을 전해진 기록을 통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자나 깨나 마음속으로 상상만 했었습니다. 여러 대형들을 만나고 나니 가보고 싶은 생각을 더욱 자제할 수 없어서, 이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서호의 뇌봉탑(雷峰塔)과 단교(斷橋) 사이를 얼마나 오고 갔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약 대형들이 묘사하여 그려낸 그림을 빌어 수 십여 군데의 경치를 살필 수 있다면 결국 누워서 유람하게 되는 것이니, 보배로운 은덕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이 잘 되고 못됨을 따질 필요 없이 다만 세밀하게 실경에 가깝게만 그리고, 각 화제에 따라 그 고적에 관한 주요 유래를 그 위에 써주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대형들의 집 위치와 거주지의 규모를 볼 수 있게 하여 제 마음대로 펼쳐 보다가 황홀하게 그 사이에서 대형들을 뒤쫓아 모시는 것처럼 해 주신다면, 어찌 신기하고도 다행스럽지 않겠습니까? 소음, 추루 두 대형께 보냅니다. 편안하십시오.

2.24.5 容于科甲, 非決性命而求之者. 惟于入場呈卷之時, 報子傳榜之際, 每不免聳動希覲, 按位不得. 事過後, 雖能自悔, 逢場則舊習輒發, 學力之不周, 殊可愧歎. 力闡才經試圍, 其必有內省之驗者, 願聞之.²⁸⁾

25) 《湛軒書外集》 卷一 <與鐵橋書>에서는 “顧此心不知幾迴來往于雷峰斷橋之間矣.”라고 적고 있다.

26) 百朋: 본래 백 개의 쌍조개라는 뜻으로, 많은 보배를 이르는 말.

27) 《湛軒書外集》 卷一 <與鐵橋書>에 수록.

28) 이 글은 홍대용의 《湛軒書》를 비롯한 국내 연행문헌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다.

【역문】

저는 과거시험에 목숨을 걸고 급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 답안을 제출할 때와 시험 결과를 알려주는 사람이 그 결과를 공포할 때에는 짐짓 가슴 조리며 급제하였으면 하는 기대에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시험이 끝난 후엔 비록 자신의 행동을 후회할 수 있었으나, 과거 시험에 맞닥뜨리자 옛 버릇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학문의 공력이 두루 미치지 못하니 매우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역암 대형은 이제 막 과거를 보셨으니 그러한 상황에 대해 반드시 안으로 성찰할 만한 경험이 있으실 터,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2.24.6 容年未四十，已視茫茫而髮蒼蒼，血氣日見衰替，志氣隨而摧惰，佔畢進修之功，每不免聊且粗畧之意。卽此旨趣，殊非遠到氣象，良可愧懼，未知力闇能免此否。〈養虛堂記〉曾有問示，而恩恩未及奉復，且以語及鄙人處，全沒稱停，乃不敢容喙而可否之。惟其圓轉流動，轉換無跡，實是千古奇文，可以編八家無愧。況其敘友道一段，尤淋漓感慨，足以醒世而喻後，則又八家之所少見者邪！²⁹⁾

【역문】

저는 나이가 사십도 안 되어 벌써 눈이 침침하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합니다. 원기가 나날이 쇠잔해지는 것이 마음까지 따라 꺾여 나태해지고, 학문을 힘써 연마하는 공부는 피폐해져 끝나버리니, 매번 잠시 잠깐 대충대충 해야겠다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은 특히나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정말로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역암 대형은 이렇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찍이 <양허당기>에서 왜 벼슬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으나 서둘러 답변 드리지 못했는데, 또 못난 저의 처지를 언급하시니 완전히 그만두었다고 할 수도 없고, 말장난으로 할 수 있고 없고를 감히 말씀

29) 이 글은 홍대용의 《湛軒書》를 비롯한 국내 연행문헌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양허당기>는 문장이 모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살아 움직이고, 문맥이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흔적 없이 매끄럽습니다. 진실로 천고의 뛰어난 문장이니 팔대가의 문장과 함께 편찬해낸다 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의 도리를 적은 단락은 더욱이 감정이 흥건히 넘쳐나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후세 사람들을 일깨울 만합니다. 당송팔대가의 문장에서조차 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2.24.7 <八詠>中<靈龕>³⁰⁾一詩, 尤其絕調, 此中士友見之者, 亦莫不欽誦而稱奇. 其時鄙書奉效者, 非有此詩爲有餘憾, 乃過計之憂, 無所不用其極也. 至有未及改正之教, 則想未悉鄙意也.

吾輩稱兄弟事, 此間士友或有非之者, 以爲儒林故事未聞其例, 惟見稗說禠志, 終非莊士法門. 此說亦甚謹嚴, 故事實無可援而爲準者, 未知此法始于何時. 古來儒者亦有行之者, 幸示之.³¹⁾

【역문】

<팔영>의 시 중에 <영감>이란 시는 매우 뛰어납니다. 그 시를 읽어본 이곳 문우들 중에 기쁜 맘으로 읊조리며 칭찬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편지를 드렸던 것은 이 시에 유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제넘은 우려에 모든 수단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아직 시구를 미처 고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건대 제 뜻을 이해하지 못하신 듯합니다.

우리가 호형호제한 일에 대해, 이곳의 벗들 가운데에 그것을 비난하는 자들은 유림의 고사에서는 그런 경우를 들어본 일이 없고 그저 향간의 설화나 잡서

30) 엄성이 홍대용에게 써준 <附鐵橋愛吾廬八詠> 중 일곱 번째 시에 해당하는 <靈龕占著>로서, “靈龕有何靈, 以問乞靈者. 吉凶論是非, 趨避敢苟且. 居易以俟命, 枯草行可捨.”라고 적고 있다. 본 《洪湛軒尺牘》 중 다섯 번째 편지에는 이 시구와 더불어 엄성과 홍대용 두 사람 간에 있었던 간략한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拙稿, <북경대 소장 《洪湛軒尺牘》原文 및 校譯(Ⅰ)>, 《중국학논총》 65집, 2019, 228쪽 참조) 홍대용의 《湛軒書》의 <外集附錄>에는 이 시구만 수록되어 있다.

31) 이 글은 홍대용의 《湛軒書》를 비롯한 국내 연행문헌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다.

에서나 볼 수 있으니, 결국 고상한 지행(志行)과 높은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매우 조심스러운데, 고사 중에는 실로 끌어다가 준거를 삼을 만한 것도 없고 이런 법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로부터 유가들 중에 또 그렇게 행하였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24.8 允³²⁾哥年屆就傅，已讀了幾卷書，而其才識何如？恨不得一受床下之拜耳。其所作詩文一二首，寄示爲望。³³⁾

【역문】

아드님은 스승을 좇아 학문할 나이가 되어 이미 책을 몇 권이나 보았다고 하는데 그 재능과 학식이 어떠한가요? 책상 밑에서 인사도 한번 못 나눈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아드님이 지은 시나 한두 수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24.9 吾輩問答，此中士友見之者無不艷嘆愛慕。惟以力闢之于鄙人，稱道太不着題，³⁴⁾惜其辭氣之率易，有害于德器之凝重，或因此而疑其意在玩侮，言實嘲諷，笑我以受其簸弄而不之覺也。此固俗夫之言，不足與辨也。惟親愛之僻，許與之過分，足下不得辭其責矣。且聖人不云乎，“吾于人，孰毀孰譽？”夫毀固惡德，譽亦出于私，其背于中正則均矣。惟高明加察焉。³⁵⁾

32) 한국국사편찬위원회 소장 抄本에는 이 行의 상단에서 '允'자를 '胤'자로 교감한 자적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청 옹정제의 이름인 '胤禛'에 대해 피휘한 것이다. '胤'은 남을 높여 그의 아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여기에서는 당시 10여 세였던 엄성의 외아들 嚴昂을 가리킨다. (한국국사편찬위원회 소장 抄本 <附朱郎齋戊子(1767)正月寄湛軒書>: “鐵橋生一子，名昂，字千里，才十二歲，九峯患其單弱，益以所生次子名晨字旭初，入爲後.” 참고.)

33) 이 글은 홍대용의 《湛軒書》를 비롯한 국내 연행문헌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다.

34) 《湛軒書外集》 卷一 <與鐵橋書>에서는 “稱道太不相當”이라고 적고 있다.

35) 《湛軒書外集》 卷一 <與鐵橋書>에 수록.

【역문】

우리의 문답에 대해 이곳 벗들 가운데에는 부러워하고 흠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역암(엄성) 대형의 저에 대한 칭송이 너무 지나쳐, 안타깝게도 그 언사의 소탈함과 평이함은 덕행과 기량의 중후함에 폐해가 있는 듯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뜻이 깔보아 업신여기는 것이며, 말들이 희롱하는 것이라고 의심쩍어합니다. 또한 그 조롱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속된 인간들의 말이라서 그들과 논쟁할 만한 것도 못 됩니다. 다만 친애함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지나치게 서로를 허락하고 칭찬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형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인께서도 “내가 남에 대하여 누구를 휘방하고 누구를 칭찬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휘방은 진실로 악덕이지만, 칭찬도 사사로운 뜻에서 나오면 아마도 중정의 도리에 반대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고명하신 대형께서는 더 보살펴 주십시오.

2.24.10 容于力闇之才學，固心悅而誠服矣。惟其心悅而誠服也。故欲其本末無疵，精粗無欠，粹然中正，終於大成。是以前後效愚，僭妄多端，其于心術出處之際，亦或有微發其端而不敢盡其說者。此所謂‘天下之寶，爲天下惜之’者，斷斷忠愛，想已見諒而不以罪之也。惟以容之淺陋，其于酬酢之際，書牘之間，露醜呈拙，不可枚舉，而終未聞一言規責，則或者玩侮嘲謔之疑，不爲無見。而朽木糞牆，初無受教之成³⁶⁾地邪？此實容深以爲憾而不能釋然者也。³⁷⁾

【역문】

저는 역암(엄성) 대형의 재능과 학식에 대해서 본디 충심으로 기뻐하며 정성껏 따랐습니다. 오직 그 마음이 기뻐야 충심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

36) “之”자 뒤에 “成”자는 문맥상 衍字로 보인다. 《湛軒書外集》 卷一의 <與鐵橋書>에는 “成”자가 보이지 않는다.

37) 《湛軒書外集》 卷一 <與鐵橋書>에 수록.

래서 그 본말에 허물이 없게 하고 정밀한 것과 거친 것에 흠이 없게 하며, 순후하게 중정의 이치를 깨달아야 마침내 대성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앞뒤로 어리석은 견해를 아뢰고, 수없이 주저넘게 멋대로 떠들어 댔지만, 또한 간혹 '심술(心術)'의 출처에 대해 논할 때에는 그 끝단 일부만을 조금 드러낸 채 저의 견해를 감히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천하의 보배는 천하의 사람에게 의해 아껴진다.'라는 의미이니, 오로지 충성스럽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별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사려 됩니다. 다만 저의 미천하고 비루한 품성 때문에 응대하여 술을 마실 때에나 편지를 주고받는 중에, 추하고 졸렬한 견해를 수없이 드러냈는데도 끝내 한 마디 지적과 책망의 말을 듣지 못했으니, 혹자 가운데 알아보아 업신여겨 희롱하는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썩은 나무나 더러운 벽처럼 형편없는 견해이지만, 애당초 가르침 받을 여지가 없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실로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시원하게 풀릴 수 없는 것입니다.

2.24.11 尊伯氏九峯³⁸⁾先生道候萬安. 容之懷風景仰, 非徒于爲力闇之伯氏而已. 乃敬修寸楮, 畧佈鄙悃, 兼以求教. 未見而有書, 筱飲兄事例在焉, 能不以見訝否? 雖然, 人各有見, 先生之意, 或不以爲然, 則望力闇一見而去之. 不以奉煩也.³⁹⁾

大容又拜⁴⁰⁾

【역문】

형님 구봉(九峯) 선생께서는 평안하신지요. 제가 그분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38) 엄성의 형인 嚴果를 가리킨다. 엄과는 字가 敏中 또는 九峰이며, 호가 春山 또는 古緣이다. 乾隆三十五(1770)년에 舉人으로 친거되었다. 예서와 산수화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清畫家詩史》, 《兩浙名畫記》, 《碧溪草堂集》, 《墨林今話》, 《墨香居畫識》 등의 서적에 그의 예술 창작에 대한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39) 《湛軒書外集》 卷一의 <與鐵橋書>에 수록.

40) 《湛軒書外集》 卷一의 <與鐵橋書>에서는 “大容又拜”가 빠져있다.

것은 그저 역암 대형의 형님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가 짚막한 편지를 올려서 미약하나마 저의 정성을 표하고 아울러 가르침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나 뵙지도 못하고 서신을 드렸으니, 이러한 전례가 소음(육비) 대형에게도 있기는 하지만 의아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사람마다 각기 견해가 있해도 구봉 선생께서 혹여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다면, 역암 대형께서 한번 보시고 없애버리시고, 번거롭게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대용이 또 절합니다.

2.25 又 <發難> 二條

吾儒與老物⁴¹⁾, 號稱三教. 中古以降, 高明俊傑之士, 出乎此則入乎彼, 先賢至以爲“彌近理而大亂眞”⁴²⁾, 擇術求道者, 其可不辨之早, 察之精乎? 儒者曰“太極生兩儀”⁴³⁾, 老氏曰“有物混成, 先天地生”⁴⁴⁾, 佛氏曰“有物先天地, 無形本寂寥”,⁴⁵⁾ 其說出源頭, 既甚相近. 儒者之‘盡性’, 老氏之‘載魄’, 佛氏之‘見心’, 其用功于內者, 亦若不懸殊. 曰“一以貫之”,⁴⁶⁾ 曰“聖人抱一”,⁴⁷⁾ 曰“萬法歸一”,⁴⁸⁾ 其守約之旨則無異. 曰“修己以安百姓”,⁴⁹⁾ 曰“我無爲而民自化”,⁵⁰⁾ 曰“慈悲以度衆生”, 其濟物之心則畧同. 凡此其同中之異, 似是而非者, 願聞其說.

41) ‘佛’자를 誤記한 것이다.

42) 朱熹, 《中庸章句·序》: “孟子沒而遂失其傳, 則吾道之所寄, 不越乎言語文字之間, 而異端之說, 日新月盛, 以至于佛老之徒出, 則彌近理而大亂眞矣. 然而尙幸此書之不泯, 故程夫子兄弟者出, 得其所考, 以續夫千載不傳之緒, 得有所據, 以斥夫二家似是之非.” 참조.

43) 《周易正義·繫辭上》 참조.

44) 《道德經》 25章 참조.

45) 중국 梁代 傅翕(497-569)이 지은 <心王銘>의 “有物先天地, 無形本寂寥. 能爲萬象主, 不逐四時凋.” 참고. (《五燈會元》 권2 <雙林善慧禪師> 수록)

46) 《論語·里仁》 참조.

47) 《道德經》 25章 참조.

48) 송나라 雪竇禪師(980-1052)이 지은 《頌古百則》의 “僧問趙州, ‘萬法歸一, 一歸何處?’ 州云, ‘我在靑州作一領布衫, 重七斤.’” 참조.

49) 《論語·憲問》 참조.

50) 《道德經》 57章 참조.

以後賢之論而言之, 則康節⁵¹⁾稱“老氏得《易》之體”,⁵²⁾ 伊川⁵³⁾稱“莊子形容道體甚好”,⁵⁴⁾ 文中子⁵⁵⁾謂“佛爲聖人”, 和靖⁵⁶⁾謂“觀音爲賢者”,⁵⁷⁾ 以諸公道學之正而反有所稱許, 何也? 上蔡⁵⁸⁾親炙程門而淫于老佛, 象山⁵⁹⁾動引孟子而近乎禪旨, 以平生論辨之勤,⁶⁰⁾ 而終不免浸染者,⁶¹⁾ 何歟? 張子房⁶²⁾純用黃老, 南軒謂有儒者氣象,⁶³⁾ 蘇子瞻⁶⁴⁾到處參禪, 晦翁稱以近世名卿,⁶⁵⁾ 兩賢之嚴于排闥而評品

- 51) 康節: 북송시대의 理學家 邵雍(1012-1077)을 가리킨다. 그의 자는 堯夫, 河南府(지금의 河南 洛陽)사람이다. 康節은 그의 시호이다. 저서로 《皇極經世》, 《觀物內外篇》, 《伊川擊壤集》, 《梅花詩》 등이 전한다. 《湛軒書外集》 卷一의 <與鐵橋書>에서는 “邵子”라고 적고 있다.
- 52) 邵雍의 아들인 邵伯溫이 지은 《邵氏聞見錄》 권19의 “以老子爲知《易》之體, 以孟子爲知《易》之用. 論文中子, 謂佛爲西方之聖人, 不以爲過. 於佛老之學, 口未嘗言, 知之而不言也. 故有詩曰, ‘不佞禪伯, 不諛方士. 不出戶庭, 直際天地.’” 참조.
- 53) 伊川: 북송시대의 이학가 程頤(1033-1107)을 가리킨다. 그의 자는 正叔, 河南 洛陽사람이다. 저서로 《周易程氏傳》, 《易傳》, 《經說》, 《程頤文集》 등이 전한다.
- 54) 《朱子語類》 卷40의 <論語·二十二>에는 “明道亦稱莊子云, ‘有大底意思.’ 又云, ‘莊子形容道體, 儘有好處.’”라고 적고 있다. 伊川은 明道를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 55) 文中子: 隋나라 道家 사상가 王通(584-617)을 가리킨다. 그의 자는 仲淹, 河東郡 龍門縣(지금의 山西 萬榮)사람이다. 《續書》, 《續詩》, 《元經》, 《禮經》, 《樂論》, 《贊易》 등을 저술했다고 하나 당나라 때 이미 모두 실전되었고, 그의 제자였던 요의와 설수가 편찬한 《文中子說》만 전해지고 있다.
- 56) 和靖: 北宋末 南宋初의 이학가 尹焞(1071-1142)을 가리킨다. 그의 자는 彥明 또는 德充, 河南 洛陽사람이다. 程頤의 직계 제자이자 和靖學派를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저서로 《和靖先生集》, 《論語解》 등이 전한다.
- 57) 조선 李瀾(1681-1763)이 지은 《李子粹語》 권4 <聖賢>의 “和靖迎觀音事, 誠不知其意. 如程·朱子必不爲之. 後學亦何敢學此等事耶? [答鄭子中: 和靖在從班時, 朝士迎天竺, 觀音於郊外, 和靖與往. 有問, ‘何以迎觀音?’ 先生曰, ‘衆人皆迎, 某安敢違衆.’ 又問曰, ‘然則拜乎?’ 曰, ‘固將拜也.’ 問者曰, ‘不得已而拜之與? 抑誠拜與?’ 曰, ‘彼亦賢者也. 見賢, 斯誠敬而拜之矣.’” 참조.
- 58) 上蔡: 북송시대 이학가 謝良佐(1050-1103)을 가리킨다. 그의 자는 顯道, 蔡州 上蔡(지금의 安徽 鳳台縣)사람이다. 程頤로부터 학문을 배워 송대 이학의 계승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후 상채학파를 창립하였다. 저서로 《論語說》, 《上蔡先生語錄》 등이 전한다.
- 59) 象山: 남송시대 철학가 陸九淵(1139-1193)을 가리킨다. 그의 자는 子靜, 撫州金溪(지금의 江西 金谿縣)사람이다. 명나라 王守仁(1472-1529)과 더불어 心學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학자이다. 저서로는 《象山先生全集》이 전한다.
- 60) 《湛軒書外集》 卷一의 <與鐵橋書>에서는 “以平生論辨之正”이라고 적고 있다.
- 61) 《湛軒書外集》 卷一의 <與鐵橋書>에서는 “而”자가 보이지 않는다.
- 62) 子房: 秦末 漢初에 정치가이자 黃老사상가로 활동한 張良(?-B.C.189)을 가리킨다.
- 63) 南軒: 남송시대 이학가 張栻(1133-1180)을 가리킨다. 그의 자는 敬夫 또는 樂齋, 호는 南軒, 漢州 綿竹(지금의 四川 綿竹市)사람이다. 저서로 《南軒先生論語解》, 《南軒先生孟子說》, 《南地易說》, 《南軒先生文集》 등이 전한다. 《湛軒書外集》 卷一의 <與鐵橋書>에서는 “南軒”의 앞에 “而”자가 적혀 있다.

若此者，何歟？

右兩條發難，⁶⁶⁾ 此天下大議論，古今大是非，願諸兄明賜剖析，以發海隅愚蒙。大容拜問⁶⁷⁾

【역문】

우리는 유교와 도교, 불교를 삼교라고 부릅니다. 중고 시기 이후 고명하고 걸출한 선비들이 유교의 가르침을 등지고 도교와 불교의 가르침에 빠져 들어 감에, 선현(朱子)께서 “글자와 글귀에 치우친 학설을 따르다가 수신과 수양을 위한 참된 가르침을 크게 어지럽힌다.”라고 깊이 경계하셨으니, 학설(術)을 취사선택하여 궁극적인 도리(道)를 구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찍이 변별하고 정밀하게 살피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유가에서는 “태극(太極)이 음양을 생겨나게 하였다.”라고 하였고, 도가에서는 “사물이 혼연히 이루어지니,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다.”라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만물이 있으니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으며, 형체가 없으니 고요하도다.”라고 하였으니, 그 학설의 근원은 이미 서로 매우 가깝다 하겠습니까. 유가에서의 ‘천성을 다한다(盡性)’, 도가에서의 ‘영혼을 싣는다(載魂)’, 불가에서의 ‘마음을 바라본다(見心)’고 한 말들은 인간의 내면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어서 또한 특별히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하나로써 꿰었다(一以貫之)’, ‘성인은 하나를 안는다(聖人抱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萬法歸一)’라고 하였으니, 그 근본 도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뜻은 다를 바 없습니다. “제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히 한다(修己以安百姓)”, “내가 정치를 펴지 않아도, 백성이 스스로 교화된다(我無爲而民自化)”, “자비로 중생을 제도한다(慈悲以度衆生)”는 말들도 그 만물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은 대략 같다고

64) 子瞻: 북송시대 문학가이자 서화가인 蘇軾(1037-1101)의 字이다.

65) 晦翁: 북송시대 이학가 朱熹(1130-1200)가 만년에 사용한 별호이다. 《湛軒書外集》 卷一의 <與鐵橋書>에서는 ‘晦翁’의 앞에 ‘而’자가 적혀 있다.

66) 《湛軒書外集》 卷一의 <與鐵橋書>에서는 “數條發難”이라고 적고 있다.

67) 《湛軒書外集》 卷一의 <與鐵橋書>에는 “大容拜問”이 빠져있다. 이 글에 담긴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홍원식의 《실학사상과 근대성》(예문서원, 1998, 22쪽)에서 소개된 바 있다.

하겠습니다. 같은 이치 가운데 다르며 옳은 것 같으면서도 그른 것 같으니, 그 설론을 듣고자 합니다.

후현들의 강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강절 선생은 “노자가 역경(易經)의 체를 얻었다.”라고 하였고, 이천 선생은 장자가 “도체(道體)를 매우 잘 형용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문중자는 “석가모니는 성인이다.”라고 하였고, 북송 말기의 화정 선생께서는 “관음보살은 현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공들의 도학이 정대한데도 도리어 칭송하는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북송시대의 상채 선생은 친히 정자 선생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노불 사상에 빠져들었고, 상산 선생은 맹자의 학설을 인용했으면서도 선종의 사상에 가까웠으니, 평생 최선을 다해 논변했음에도 끝내 이단에 빠져들게 된 것은 어째서 입니까? 장자 방은 순전히 황노(黃老)의 학술을 펼쳤는데, 남현 선생은 “유가 선비의 기상이 있다.”라고 평하셨고, 소자점은 도처에서 참선했는데 회옹 선생은 “근세의 명망 있는 큰 선생이다.”라고 평하셨으니, 두 현인께서 엄히 이단을 배척하셨는데도 논평함이 이와 같은 것은 어째서 입니까?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의문들은 천하의 크나큰 논쟁 사항이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안건들이니, 대형들께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바다 저쪽의 이 어리석은 벗을 일깨워 주십시오.

대용은 절하고 여쭙습니다.

2.26 書後附四言詩九章⁶⁸⁾

2.26.1 飛鳥，懷良朋也。遙遙南國，獲此良友。同心離居，欣悵交中。

【역문】

하늘가 떠도는 새가 되어 벗을 그리워하다 아득한 남녘에서 온 벗의 편지를

68) 이하 四言詩 9章은 홍대용의 《湛軒書》를 비롯한 국내 연행문헌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다.

받았습니다. 몸은 헤어져 있으나 그리워하는 심정은 똑같으니 기쁨과 슬픔이 마음속에 교차합니다.

2.26.2 翩翩飛鳥, 集于北林. 堂堂嚴子, 金玉其心. 無營無欲, 矢我好音. 聖道無疆, 與子鉤深.

【역문】

훨훨 나는 새들이
북쪽 수풀에 모여들었네
당당한 엄자(엄성)여!
그 마음 금옥과 같구나
할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는데
내게 훌륭한 가르침 베풀어 주었네
성현의 가르침 끝이 없으니
그대와 더불어 그 심오함 밝혀 보리라

2.26.3 翩翩飛鳥, 集于南山. 堂堂嚴子, 婉如其顏. 聖道雖遠, 莫云其艱. 惟善是勸, 惟邪是閑.

【역문】

훨훨 나는 새들이
남산에 모여들었네
당당한 엄자(엄성)여!
아름답고 온순한 모습이로다
성현의 도 비록 심원하다해도
그 힘겨움 말하지 마시고



선한 것이나 권하고
사악한 것일랑 가까이하지 마시게

2.26.4 猗歟嚴子, 旣明且聰. 聖道孔邃, 無惰爾功. 韜光坦步, 正慮修容. 精神寂寞, 乃與天通.

【역문】

아름답다! 엄자(엄성)여!
눈도 밝고 귀도 밝구나
성현의 가르침 크고 깊으니
그대 공부를 게을리 마시게
재덕 감추고 담담하게 걸어가며
생각 바로 하고 용모 가다듬을지니
정신이 고요하고 적막해지면
곧 하늘과 통하리라

2.26.5 猗歟嚴子, 旣聰且明. 英風外達, 妙鑑內貞. 燁燁⁶⁹⁾文藻, 藹如其成. 溫恭執雌, 人莫汝爭.

【역문】

아름답다! 엄자(엄성)여!
눈도 밝고 귀도 밝구나
영걸스러운 풍채 밖으로 이르고
빼어난 능력 안으로 올곧으니
밝게 빛나는 글재주

69) 두 글자는 피휘하여 모두 마지막 획을 생략하였다.

무성하게 이뤄지며
 온공하고 유순한 덕
 그대 따를 자 없으리라

2.26.6 猗歟巖子, 才藝盖世. 高天濶海, 廣居無際. 無安小道, 致遠恐泥. 敬
 慎屋漏, 莫曰幽細.

【역문】

아름답다! 엄자(엄성)여!
 재능과 기예 세상을 뒤덮는구나
 높은 하늘과 드넓은 바다에
 끝없이 넓게 펼쳐지리니
 작은 가르침에 안주하지 않고
 고원한 학문에 뜻을 두어 흐려질까 두려워하네
 근신하는 마음의 집에도 비가 새는 법
 그윽하고 세밀하다 말하지 마시게

2.26.7 嗟余小子, 有志未就. 西南得朋, 與子邂逅. 視爾高朗, 愧我寡陋. 徘徊
 歲暮, 歎此三秀.

【역문】

아! 이 소자는
 뜻은 있었으나 이루지 못하였건만
 서남 녘에서 벗을 얻어
 그대와 함께 해후하였네
 그대의 높고 밝은 학식을 쳐다보니

내 부족하고 비루함이 부끄럽기만 하고
한 해의 끝자락 배회하자니
이 세 수재들에 대한 그리움에 탄식만 나오네

2.26.8 截彼釣臺，山高水長。典刑不墜，惟子之良。矯矯九峯，益篤其光。覃及海隅，德音孔彰。

【역문】

저 조어대(釣魚臺)를 끊어버리니
산 높아지고 물길 길어지네
전해온 법식 무너지니 앓으니
오로지 그대의 어짊 때문이리라
높고 높은 구봉의 학문이여!
그 빛 더욱 돈독히 하소서
바다 건너까지 퍼져 나왔으니
덕스런 소리 크게 빛나소서

2.26.9 嗟爾伯仲，坡穎是鄙。並美儒門，二程是冀。春風渾成，乃敬作字。伊川謹禮，日履安地。

【역문】

아! 그대는 백중을 이루어
소식, 소철 같은 분도 알보는구려
함께 유가의 문도를 아름답게 하니
정이, 정호 선생 같은 인물 되기를 기대하네
춘풍이 혼연히 이루어져

이에 공경스럽게 글을 쓰네
삼가 이천(伊川) 선생의 예범 따라
날마다 안존한 경지 밟으소서

2.26.10 相古先民, 入德有門. 懼以終始, 要道不煩. 斂華就實, 勗以存存. 想思昵昵, 予欲無言.

【역문】

옛 선민들을 살펴보니
성인의 품덕에 들어가는 데에도 방도가 있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경계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도에도 괴롭다 하지 않았고
화려함 단속하고 충실한 데로 나아갔으며
심신을 보전하기를 으뜸으로 삼았구나
친절한 그대 그리워도
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구려

2.26.11 丙戌重九, 海東洪大容稿 【此札于丁亥年閏七月自浙寄至閩中.】

【역문】

병술년(1766) 중앙절에 해동 홍대용이 적습니다. 【이 서찰은 정해년(1767) 윤 칠월에 절강으로부터 민중으로 보내온 것이다.】

< 參考文獻 >

(清)羅以智 再抄, (朝鮮)洪大容·(清)嚴誠·陸飛 撰, 《日下題襟合集》, 北京대학 소장본. 編者 未詳, 《燕杭詩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사본, 1933.

김태준 編, 《乙丙燕行錄(영인해설)》,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朝鮮)金昌翁 撰, 《三淵集》, 《韓國文集叢刊》 165-167책, 民族文化推進會, 1996.

(朝鮮)洪大容 지음, 조규익·장경남·최인황 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1997.

홍원식, 《실학사상과 근대성》, 예문서원, 1998.

(朝鮮)李德懋 撰,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 257-259책, 民族文化推進會, 2000.

(朝鮮)洪大容, 《湛軒書》, 《韓國文集叢刊》 248책, 民族文化推進會, 2000.

(朝鮮)洪大容 지음, 김태준·박성준 옮김,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2001.

劉婧, 《日下題襟集》, 上海古籍出版社, 2014.

박현규, <朝鮮·清朝人の 燕京 交遊集 - 《日下題襟合集》의 발굴과 소개>, 《韓國漢文學研究》 23집, 1999.

拙稿, <북경대학 소장본 《洪湛軒尺牘》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45집 2010.

박현규, <《日下題襟集》 편찬과 판본>, 《韓國漢文學研究》 47집, 2011.

拙稿, <북경대소장 《洪湛軒尺牘》 原文 및 校譯(I)>, 《중국학논총》 65집 2019.

_____, <북경대소장 《洪湛軒尺牘》 原文 및 校譯(II)>, 《중국학논총》 66집 2019.

< Abstract >

HongDamHeonCheokdok(洪湛軒尺牘) in Peking University:
Its Deciphered Text and Annotated Translation(III)

Kang, Chansoo

This is the third paper in a series of research courses that examine *HongDamHeon Cheokdok*(洪湛軒尺牘), kept in the Rare Books Collection of Peking University library, comparing four letters—from the 23rd to the 26th

letter—with the domestic literary collection and translating it back into Korean.

The four letters written by Hong Dae-yong in 1766 contain a number of sentences that reveal his academic thought, while writing down his feelings of missing three Qing Dynasty's scholars, Yan Cheng(嚴誠), Pan TingJun(潘庭筠) and Lu Fei(陸飛) desperately. In the 23rd letter, he said that the purpose of reading books is to reveal the truth and deal with many things, so knowledge and practice must be combined. In the 24th letter, he referred to "Silhak(實學)" and further emphasized his academic attitude. In the 25th letter, he asked for the ultimate reason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referring to the famous words of several philosophers.

Nine poems in the 26th letter were written by Hong Dae-yong to Yan Cheng in September 1766.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this letter and Hong Dae-yong's *DamHeonSeo*(湛軒書), I investigate they are an unknown poems not written in *DamHeonSeo*.

Key words: *HongDamHeonCheokdok*, *Ilha Jegeum Habjip*, *DamHeonSeo*, Hong Daeyong, Qing Dynasty scholar, envo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4. 30	2020. 05. 11 - 05. 31	2020. 05. 15	2020. 06. 01	2020. 06. 30

